

BRIEF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발행인 박재록
 편집인 주혜진
 디자인 신선아·여성주의 잡지 BOSHU
 발행일 2020. 6. 30

뉴스 빅데이터 속 ‘비혼’을 분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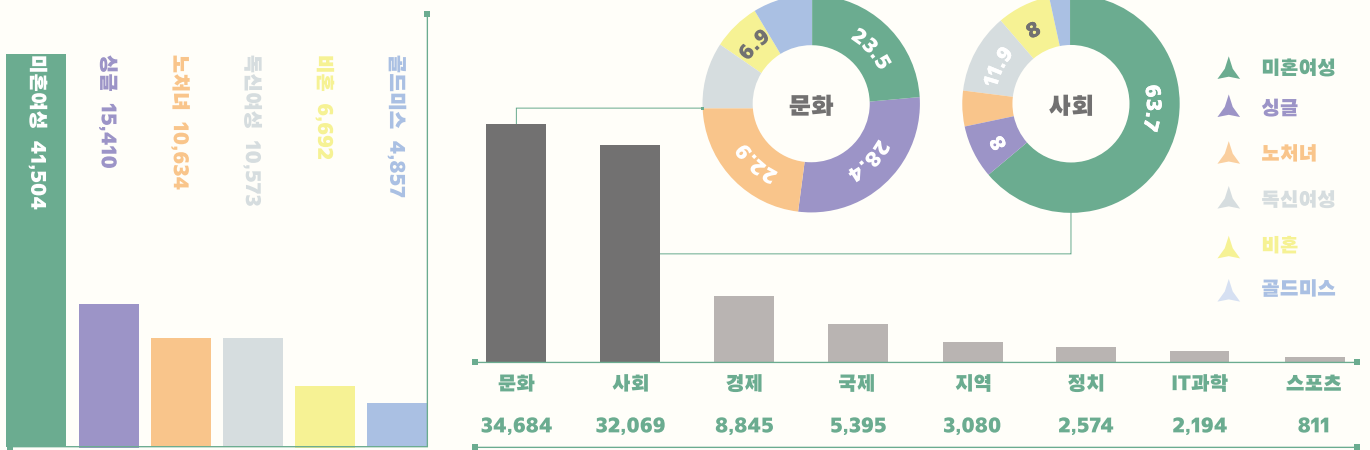
‘지는 미혼, 뜨는 비혼’

오랜 시간 우리 사회는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을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고 여겨왔다. 특히 결혼하지 ‘못’한 여성을 ‘미혼 여성’, ‘노처녀’, ‘싱글’, ‘독신 여성’, ‘골드미스’ 등으로 부르면서 결혼과 출산이라는 표준적인 생애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2000년대 초, 여성학 연구자들은 결혼에 대한 여성의 태도 변화를 환기시키기 위해 ‘비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² 유사 연구들도 1990년대 후반 또는 2000년대 초반부터 ‘비혼’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고 언급한다.³ 2000년대 중반부터 여성 비혼을 급증에 주목하면서 여성이 여러 이유에서 결혼을 ‘안’하고 있다고 이해하기 시작했고, ‘비혼’이라는 용어도 새롭게 조명됐다.² 이번 호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신문기사에서 ‘비혼’을 포함해 결혼을 ‘안’한 여성을 부르는 다양한 용어가 어떻게 쓰여왔는지 살펴본다.

1 마지연(2015), ‘비혼(非婚)과 만혼(晩婚)의 사회적 담론 연구 : 주요일간지 기사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정현희. (2011). ‘한국 사회의 여성’, 여/성이론, (25), 233-240.
 3 ①김혜영·선보영·진미정·사공은희. (2007). 「비혼 1인 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② 이재경. (2015). ‘가부장제 이후의 한국 가족- 정상성에서 유연성으로’, 한국문화연구, 29(0), 283-310.

결혼 하지 않은 여성을 언급한 기사는 얼마나 나왔을까?

단위 : 건, %



키워드별 뉴스 기사 수 (199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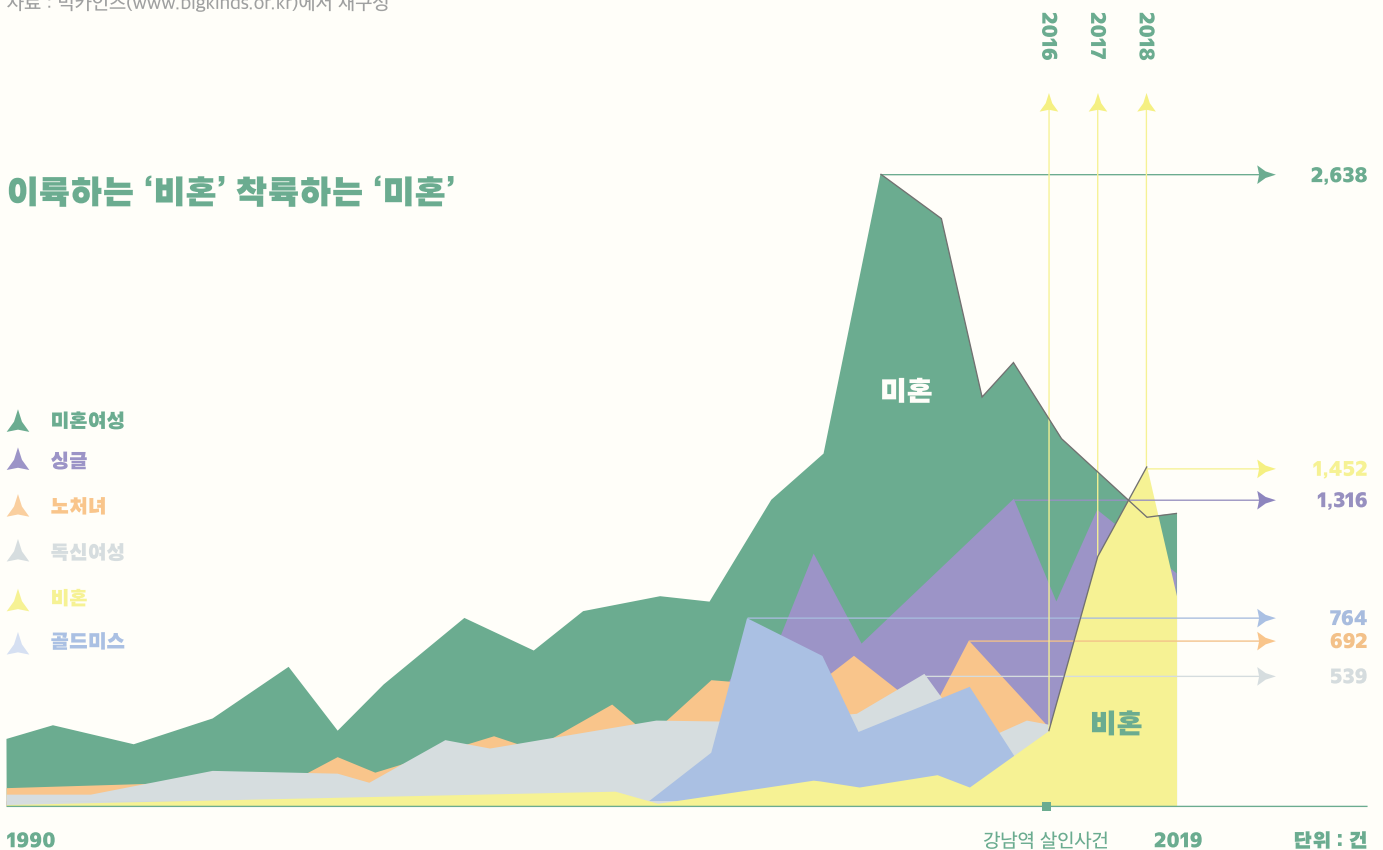
빅카인즈⁴를 통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간 발행된 뉴스를 키워드별로 검색한 결과 '미혼 여성' 41,504건, '싱글'⁵ 15,410건, '노처녀' 10,634건, '독신 여성' 10,573건, '비혼' 6,692건, '골드미스' 4,857건 순이다.

자료 : 빅카인즈(www.bigkinds.or.kr)에서 재구성

분야별 키워드 사용 비율 (1990-2019)

분야별 신문기사의 키워드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6가지 키워드는 문화와 사회 분야에서 높은 사용 비율을 보인다. 문화 분야에서 언급된 키워드는 '싱글'(28.4%), '미혼 여성'(23.5%), '노처녀'(22.9%), '독신 여성'(9.7%), '골드 미스'(8.5%), '비혼'(6.9%) 순이다. 사회 분야에서는 '미혼 여성'(63.7%)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독신 여성'(11.9%), '싱글'(8.0%), '비혼'(8.0%), '노처녀'(5.3%), '골드미스'(3.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륙하는 '비혼' 착륙하는 '미혼'



연도별 키워드 사용 횟수 (199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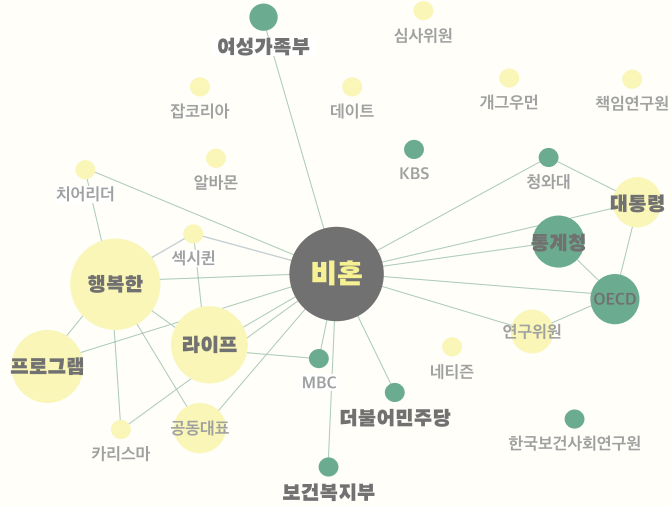
연도별 키워드 사용 횟수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사용된 '미혼 여성'은 1990년부터 꾸준히 사용 횟수가 증가했으며, 2013년에 2,63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향세로 돌아섰다. '골드미스'는 2009년, '독신 여성'은 2012년, '노처녀'는 2014년, '싱글'은 2015년에 각각 정점을 찍고 이후 사용 횟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비혼'은 사용 횟수가 미미했으나 2017년(1,167건)과 2018년(1,452건)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자료 : 빅카인즈(www.bigkinds.or.kr)에서 재구성

‘비혼’, 최근 4년간의 변화

비혼 관계도 (2017-2020)

2015년부터 뉴스에서 ‘비혼’ 사용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비혼 여성’을 제치고 가장 많은 사용 횟수를 기록했다. 따라서 2020년을 포함하여 최근 4년간 ‘비혼’과 연관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키워드**와 **기관**을 중심으로 관계도 분석⁶을 했다.



2017

19대 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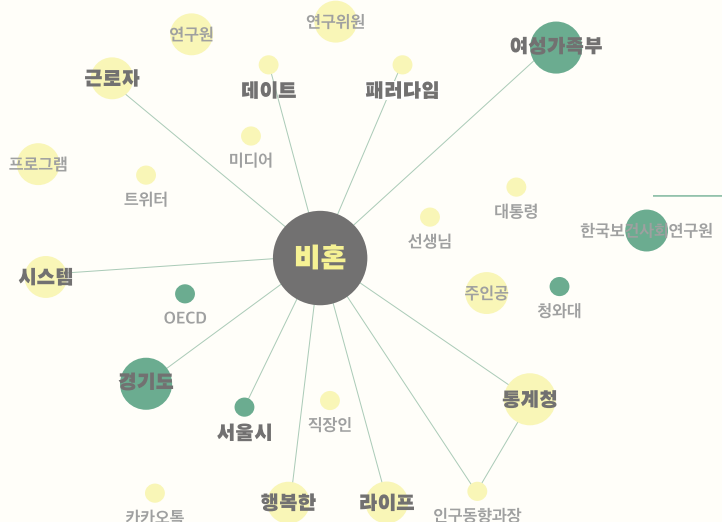
2018

‘비혼’과 관련된 키워드로 ‘행복한’, ‘라이프’, ‘프로그램’, ‘여배우’, ‘출연진’이 나타난 것은 ‘비혼’을 주제로 한 ‘비행소녀’⁷라는 예능 프로그램 관련 기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기관으로는 ‘통계청’, ‘OECD’와 관련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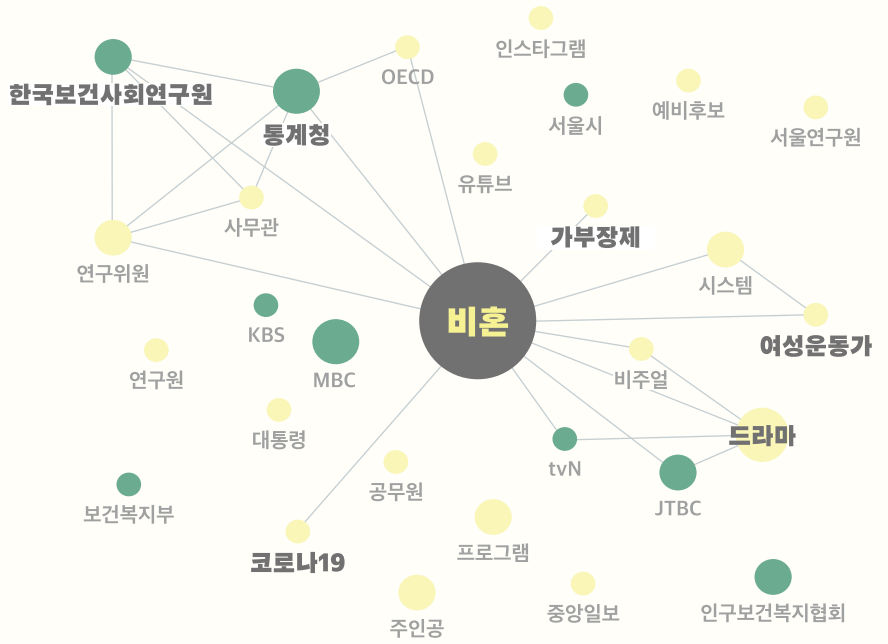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 ‘통계청’이 높은 관련도를 보인다. 또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부기관과 정당이 새롭게 등장한다.

2019

‘통계청’, ‘여성가족부’, ‘행복한’, ‘라이프’가 ‘비혼’과 높은 관계도를 형성했으며, ‘시스템’, ‘근로자’, ‘데이트’, ‘패러다임’, ‘서울시’, ‘경기도’ 등이 ‘비혼’ 관련 기사에 자주 언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인 키워드는 '드라마'다. 분석에 사용된 기사를 확인한 결과 '비혼'을 주제로 한 드라마 관련 기사가 많았다. 그 밖에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관련도가 높고, '가부장제', '코로나19', '여성운동가'와 같은 단어들도 새롭게 등장한다.



‘비혼’ 그리고 ‘대전’

‘비혼’과 ‘대전’을 포함하는 뉴스 속 키워드

대전에서 ‘비혼’에 대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비혼’과 ‘대전’이 포함된 신문기사에서 어떤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는지 연관어 분석*결과를 살펴보자. 2017년부터 2020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검색된 기사 수는 62건이다. 62건의 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저출산’(81회)이었으며, ‘여성들’(79회), ‘보수’(50회)가 그 다음 순이다.

저출산	81회	🔍
여성들	79회	🔍
보수	50회	🔍

그 외 키워드로는 고통화(42회), 합계출산율(33회), 여성주의(21회), 非婚(5회), 가족 형태 수용 공론화(3회) 등이 있다.

- 빅카인즈(BIGKinds)는 다양한 언론사(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로부터 수집한 뉴스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하여 만든 뉴스 분석 서비스임. 최대 54개 매체에서 1990년부터 현재까지 발행한 약 6천만 건 뉴스 콘텐츠를 검색하고 활용 가능함
- ‘싱글’ 키워드 검색의 경우 음악 앨범이나 골프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같이 검색되었기 때문에 ‘결혼’ 키워드를 추가하여 검색한 결과만을 정리하였음
- 관계도 분석은 검색 결과 중 정확도 상위 100건의 뉴스 본문을 형태소 분석하여 명사상당어구를 추출한 뒤 개체명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개체명을 추출함. 이때 개체명의 관련기사 건수를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해서 시각화한 형태로 보여줌. 색깔로 인물, 기관, 장소, 키워드를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이번 분석에서는 키워드와 기관만 사용했으며, 가중치(관련기사 건수)는 3으로 설정함
- 비행소녀는 ‘비혼이 행복한 소녀들’의 줄임말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리얼 라이프 예능 프로그램임. 2017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방송됨
- 연관어 분석은 토픽 랭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검색 결과 중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빈도순으로 출력해 보여줌